

튀니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1. 2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8
IV. 국제신인도	11
V. 종합의견	13

튀니지 (Republic of Tunisia)

I. 일반개황

면적	162천 Km ²	GDP	358억 달러 (2010년)
인구	10,27만 명 (2010년)	1인당 GDP	3,738 달러 (2010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Tunisian Dinar (T.D)
내외장척	츠스방	환율달리당	1:3 (2010년)

- 북부 아프리카 중앙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튀니지는 면적이 162천 Km²로 한반도의 4분의 3에 해당하고, 인구는 1,040만 명에 불과하여 마그레브 지역으로 지정되는 리비아, 알제리, 모로코 등 주변국들에 비해 소규모 국가임.
- 경제는 농업, 석유, 인광석 등에 주로 의존하여 왔으나, 최근에는 제조업, 관광업 등이 경제의 중요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경제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.
- 벤 알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하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정치·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으나, 최근 발생한 소요사태로 벤 알리 정권이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되었으며, 6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예정임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 : %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 ^e
경제성장률	5.7	6.3	4.6	3.1	3.4
재정수지 / GDP	-2.7	-2.8	-0.8	-3.0	-5.0
소비지불가상충률	4.2	3.4	4.9	3.5	4.4

자료: IMF 및 BEA.

□ 경제성장 둔화 추세 지속

- 튀니지는 농업과 서비스업(관광·운송·통신업 등)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경제성장은 강수량에 따른 농산물 작황과 치안안정 여부에 많이 좌우되고 있음.
- 농업은 GDP의 11~15%, 수출의 9~1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주요 농작물은 밀과 올리브임.
- 서비스업은 GDP의 62%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큰 산업이며, 특히 운송·통신업의 GDP 비중은 16%에 달함. 또한 관광업은 GDP의 6~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2009년 튀니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7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.
- 2008년까지 농업생산 증가와 관광업 등의 호조세에 힘입어 연간 5%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으나,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.1%로 둔화되었음.

- 2010년에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3% 중반대의 경제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, 2011년에는 최근 발생한 소요사태로 인한 정치·사회 불안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성장률이 2%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재정수지 적자 지속

- 재정수지는 공공부문 지출확대, 연료 및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.
- 2010년에도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실시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GDP의 5%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, 2011년에는 연료 및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증가,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비용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6%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소비자불가 상승세 지속

- 소비자불가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필품 가격 통제 등에 힘입어 연 3~4%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음.
- 그러나 2010년에는 원유 및 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불가상승률이 4% 중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2011년에도 원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, 최근 시위 사태로 인한 정치·사회 불안정이 전반적인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불가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·정책

[구조적 취약성]

□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

- 2007년 기준 관광, 운송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62%, 섬유산업, 식료품 가공 중심의 제조업*이 19%를 차지하고 있음. 또한 튀니지는 지리적으로 유럽에 근접하고 있어 수출의 70% 이상, 수입의 60% 이상을 EU에 의존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튀니지 경제는 EU의 경기상황, 세계 운송경기, 테러 발생에 따른 치안불안 등 대외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.

* 제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, 2008년 수출에서 섬유가 21.9%, 전기기계가 15.8%를 차지하였으나, 아직까지 취약한 수준임.

[성장 잠재력]

□ EU 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

-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까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, 2008년에는 EU와의 FTA가 전면 발효되었음. 또한 튀니지는 EU와 통합 및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지위격상(advanced status)을 협의 중에 있음.

□ 비교적 우수한 인적자원과 양호한 인프라 수준

- 정부예산의 28%(GDP의 7% 수준)를 교육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, 식자률(literacy rate)은 79% 수준으로 튀니지는 중동,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.

- 교역, 서비스 분야에서 지역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프라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으며, 특히 도로, 철도, 해상운송 인프라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[정책성과]

□ 섬유산업을 대체할 기계·전기전자산업 및 관광업 육성

- 튀니지 정부는 2005년 1월 다자간섬유협정(Multi-Fibre Arrangement) 종료* 이후 국제 경쟁력이 저하된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기계·전기전자 산업, 관광업 육성에 주력해 왔음.

* 섬유제품의 EU시장 수출시 복제품 주었던 튀니지시스템이 종료되어, 튀니지 섬유제품은 동유럽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,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였음.

- 기계·전기전자 산업은 수년간 매년 7% 이상 성장하면서 제조업 분야 중에서는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,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수십 건의 차량 및 항공부품 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음.
- 관광업도 GDP의 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관광수입이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부상하였음.

□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실적은 다소 부진

- 튀니지는 일부 국영은행과 국영 통신기업의 민영화에 성공하였으나, 전체적으로 민영화 추진속도가 느리고 기대만큼의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음.

- 주요 민영화 실적으로는 ① UIB(Union Internationale de Banques)의 지분 52%를 프랑스 은행에 매각(2002년), ② Banque de sud의 지분 33.5%를 스페인 은행에 매각(2005년), ③ 튀니지텔레콤(Tunisie Telecom)의 지분 30%를 22.5억 달러에 UAE 통신회사에 매각(2006년), ④ Banque Tunisio-Koweitienne의 지분 60%를 프랑스 은행에 매각(2008년)한 것을 들 수 있음.

- 한편, 튀니지 최대 통신사인 튀니지텔레콤 주식을 튀니지 및 프랑스 주식시장에 상장*시키려던 계획은 최근 발생한 소요사태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됨.

* 2010년 12월 튀니지텔레콤은 튀니지와 프랑스 주식시장에 각각 지분 10%씩을 2011년 1/4분기 중에 상장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.

□ 미석유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

- 1990년 대 초반까지 석유·가스산업*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, 이후에는 섬유, 시멘트, 전기전자산업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가 다민화되고 있음.

* 튀니지는 매장량 기준 원유 1억 배럴, 천연가스 1,000억m³을 보유하고 있음.

- 또한 규제완화, 국영기업 민영화 등에 힘입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.

*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(억 달러) : 6 (2004) → 8 (2005) → 33 (2006) → 16 (2007) → 28 (2008) → 17 (2009)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 ^c
경 상 수 지	-619	-917	-1,711	-1,234	-942
경 상 수 지 / G D P	-2.0	-2.6	-4.2	-3.1	-2.4
상 품 수 지	-2,513	-2,876	-4,010	-3,698	-3,573
수 출	11,689	15,148	19,184	14,419	16,708
수 입	14,202	18,024	23,194	18,117	20,281
외 환 보 유 액	6,777	7,854	8,853	11,061	10,341
총 외 채 잔 액	18,638	20,445	20,776	20,124	19,625
총 외 채 잔 액 / G D P	59.9	57.3	50.7	50.9	50.9
D S R	14.4	11.3	7.7	14.9	11.5

자료: IMF 및 HUI.

□ 상품·경상수지 적자 지속

- 수출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으나, 경제개발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본재, 휘발유, 식료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,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경상수지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, 상품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관광소득, 운송소득, 해외근로자 송금 등으로 보전하고 있음. 2010년에는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2% 중반대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나, 2011년에는 소요사태로 인한 정치·사회불안이 관광수입 및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3% 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 - 상품수지 : -4,010 백만 달러('08) → -3,698 백만 달러('09) → -3,573 백만 달러('10)
 - 서비스수지 : 2,644 백만 달러('08) → 2,525 백만 달러('09) → 2,500 백만 달러('10)
 - 소득수지 : -2,267 백만 달러('08) → -2,010 백만 달러('09) → -1,900 백만 달러('10)
 - 경상이전수지 : 1,922 백만 달러('08) → 1,951 백만 달러('09) → 2,000 백만 달러('10)

[외채상환능력]

□ 외환보유액 증가

- 외환보유액은 관광수입, 국영기업 민영화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2010년 말 외환보유액은 103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6년 말의 68억 달러 대비 52%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.
- 외채 규모는 GDP 대비 50% 내를 유지하고 있어 다소 과중한 편이나, DSR이 10%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증가추세에 있어 외채상환불능 가능성은 크지 않음.

Ⅲ. 정치 · 사회동향

1. 정치 및 국제관계

[정치 안정]

□ 벤 알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 붕괴

- 벤 알리(Zine el-Abidine Ben Ali) 전 대통령은 1987년 집권한 이래 인륜 통제,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, 최근까지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음.
- 그러나 2010년 12월 중순에 수도 튀니스에서 200km 떨어진 시디부지드(Sidi Bouzid)에서 수백명의 시위대가 고실업률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사태가 정부의 강경진압과 일자리 창출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투자약속에도 불구하고 튀니지 전역으로 확대되었음. 결국 벤 알리 전 대통령이 2011년 1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함에 따라 23년간 지속되어 온 벤 알리 정권이 붕괴됨.

□ 과도정부 구성, 7월 중순 대선 실시 예정

- 벤 알리 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망명으로 푸야드 메바자(Foued Mebazaa) 하원의장이 헌법에 따라 과도정부의 임시대통령이 되었고, 2011년 1월 17일 과거 정권 인사 및 야당 등 23명으로 구성된 과도정부 내각이 발표되었음.
- 그러나 모하메드 가누치(Mohamed Ghannouchi) 총리를 비롯하여 국방, 내무, 재무, 외부 등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과도정부 내각에 유임됨에 따라 과도정부 각료로 임명된 일부 야당 인사들이 사임하고 국민들의 과도정부 내각구성에 대한 불만 시위가 튀니스를 비롯한 17개 지방도시에서 계속됨.

- 2011년 1월 27일 과도정부가 시위대의 강제제 인사 퇴진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개각*을 단행하고 새 과도정부 내각을 구성하였음.

* 과도정부 각료 23명 중 12명을 교체하였고, 교체 대상에는 벤 알리 진 대통령 인사인 외교, 국방, 내무부 장관도 포함되었음.

- 새 과도정부가 국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치안상황도 개선되면서, 새 과도정부는 조속한 사회안정과 7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를 자유롭게 공정하게 실시할 과제를 안고 있음.

[국제관계]

□ EU 및 미국과 우호관계 지속

- EU는 튀니지의 가장 중요한 교역파트너로서, 미국과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이들 국가와의 우호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튀니지와 정치·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EU는 튀니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2013년까지 2억 5,800만 유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고, 이중 1,700만 유로는 즉시 지원할 예정임을 밝힘.
- 미국도 정국 안정을 위해 튀니지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으로 보임.

□ 일부 아랍국가와는 긴장관계 형성 가능성 잠재

- 튀니지는 그동안 주변 아랍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, 새롭게 출범하게 될 튀니지 정부 입장에서도 원조 또는 투자의 형태로 주변 아랍국의 도움이 필요함.
- 그러나 벤 알리 진 대통령에게 망명지를 제공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벤 알리 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리비아와는 긴장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.

2. 사회 및 소요사태

□ 시위사태는 일단 진정국면, 그러나 재발 가능성 잠재

- 2010년 12월 17일 고향학 실업자인 정과불 행상 청년의 분신자살로 촉발된 튀니지 시위사태는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최소한 219명이 사망하고 51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었음.
- 또한 관공서 및 상점에 대한 방화와 약탈행위가 성행하고 죄수들이 탈옥하였으며, 튀니지 국민들이 프랑스, 이탈리아 등 주변 국가로 피신하는 등 사회혼란이 크게 초래되었음.
- 벤 알리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13일에 2014년 대신 물출기, 시위대에 대한 발표금지, 언론의 자유보장, 생필품 가격인하 등 개혁조치를 발표하였으나, 전국적 시위는 계속됨.
- 과도내각에 구 정권측 인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소규모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, 통금이 해제되고 상점이 영업을 재개하는 등 튀니지는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하였음.
- 그러나 내전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돌발변수가 발생하는 경우 소요사태 재발, 군부 개입 등 사회가 다시 혼란이 빠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.

□ 높은 실업률은 당분간 지속

- 벤 알리 정권 붕괴의 발미를 제공한 높은 실업률은 향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, 단기간 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.

-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14%대 수준이나, 실제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 15~29세 그룹의 실업률은 30%를 상회하고 고학력 실업률은 23%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.
-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.

IV. 국제신인도

1.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

- OECD : 3등급 (2010. 1) → 3등급 (2011. 1)
- S&P : BBB- (1997. 4) → BBB (2000. 3)
- Moody's : Baa2 (2003. 4) → Baa3 (2011. 1)
- Fitch : BBB (2008. 9) → BBB (2010. 2)

- Moody's는 최근 발생한 소요사태에 따라 2011년 1월 튀니지의 신용등급을 기존 Baa2에서 Baa3로 1단계 하향조정하고 등급 전망도 '부정적'으로 평가하였음.

- S&P와 Fitch는 튀니지의 등급 전망을 '안정적'에서 '부정적'으로 변경하였으나, 신용등급 자체는 종전의 BBB로 유지하고 있음.

* S&P는 튀니지의 정치 상황의 변화와 경제적 영향 등을 주시하이 향후 3개월 내에 등급의 변경 여부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.

- 한편, 2011년 1월에 개최된 OECD CRE 회의에서는 즉각적인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보다는 당분간 튀니지의 사태민화 추이를 지켜보자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종전의 3등급이 유지되었음.

2.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미국 EXIM : 최고 부보율 적용
- 영국 ECGD : 최고 부보율 적용
- 독일 Hermes : 단기 전액 인수 가능

3. 외채상환태도

□ 최근 외채 연체 사례 없음

- 튀니지는 최근 10년간 외채에 대한 연체 사실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함.

4. 우리나라와의 관계

<표 3> 한·튀니지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	2008	2009	2010	주요 품목
수 출	137	127	345	철도차량 및 부품, 자동차 등
수 입	58	19	35	의류, 알루미늄 등
합 계	195	146	380	-

* 자료: KOTIS.

- 국교수립 : 1969년 3월 31일(북한과는 1975년 7월 16일)
- 주요협정 : 사증면제협정('69), 문화협력협정('69), 투자보장협정 ('75), 이중과세방지협정('88), 과학기술협정('94), 환경협력협정('07)
- 우리나라와의 2010년 교역규모는 약 3.8억 달러임.
 - 주요 수출품은 철도차량 및 부품, 자동차를 중심으로 약 3.4억 달러, 수입은 의류,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약 0.4억 달러를 기록함.

- 2010년 튀니지와 의 교역규모는 철도차량 및 부품,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.6배 증가하였음.

□ 해외직접투자(2010년 9월말 누계, 총투자 기준): 6건, 3,643천 달러

V. 종합의견

- 튀니지는 농업, 섬유산업, 관광·운송·통신업 등 서비스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, 경제성장률, 불가상승률, 외환보유액 등 경제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.
- 그러나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소요사태로 23년간 지속된 벤 알리 정권이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된 상태로, 사회불안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2011년에는 경제성장률 둔화, 불가상승, 재정·성장수지 적자 확대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아울러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관광, 운송 등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으며, EU와의 교역비중이 60%를 상회하는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.
- 정치적으로는 인륜탄압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벤 알리 전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정치·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음.
- 최근 소요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나, 대선이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예상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위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.
- 한편, 이번 소요사태를 촉발시킨 고실업률과 생활수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향후 튀니지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.